



목포·여수해경 8월 禁漁期 불법어업 단속 승선 취재

# 새벽 '몰래조업' 숨바꼭질 경비정만 뜨면 '쏟살 도주'

8월의 바다는 도망가는 어민과 쫓는 단속반의 '숨바꼭질'이 한창이다. 해양수산부는 꽃게 등의 어족보호를 위해 8월을 '금어기'(禁漁期)로 정하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은 몰래 조업에 나서고 해경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본보는 지난 4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합동으로 불법단속에 나선 목포·여수해경의 경비정 두 척에 승선,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4일 오전 11시20분, 여수시 화양면 가막만 앞을 달리던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P-121'정(30t급)이 연진을 죽였다. 바로 앞 20여m 앞엔 소형 어선 한 척이 조업 중이었다. 정장(艇長) 임재철 경위가 스피커로 "잠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주는 선적증서·어업허가증을 들고 경비정으로 와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선장은 '또 단속이네'라며 약간 짜증 섞인 얼굴. 그가 가져온 허가증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종과 어업기간 등이 표시돼 있었다. 이 배는 '하모'(갯장어)잡이 배. 조업금지 대상은 아니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 곳곳을 찍으며 수색을 벌였지만, '이상 무'였다.

기동정은 수습어 척의 문어잡이 배들이 물러있는 돌산을 신기마을로 뱃머리를 돌렸다. 해경이 떠날 무렵, 선장이 한 마디를 슬쩍 건넸다. "아침시간에 일부 어선들이

금어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이 신안군 암태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꽃게 등의 금어기인 이번 달 하루 평균 3~4회의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 암태도=위직량기자 jrw@kwangju.co.kr

## 교묘한 조업에 단속 허탕 일수

## 어선 속도 빨라져 잡기 힘들어

## "생활터전 황폐화 자각했으면..."

불법 어업을 하지만, 경비정만 나타나면 손살갈이 달아나버려. 좀더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잖아."

같은 시각 신안군 암태도 북동쪽 2km 앞바다. 목포해경 경비정 'P-96'정(94t급·정장 정영진)이 단속에 나섰다. 검문한 배는 주낙(延鰯)으로 민어를 잡는 어선. 해경 6명과 정장 4명이 '이 잡듯' 배를 뒤졌지만, 불법조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정영진 정장은 "재래시장에서 국내산 꽃게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금어기에도 조업하는 어선이 있는데, 적발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은 산란기에 들어간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꽃게(이하 금어기 6월 16일~8월31일) ▲대게(6월1일~10월31일) ▲닭새우(7월1일~8월31일) 등 10여 종을 8월 중 잡지 못

게 하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0일간의 어업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하루벌이가 막대한 일부 어민들은 새벽녘 '은밀히'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선박이 수평선 너머 모습을 드러내면 재빨리 가까운 해안으로 달아나 버린다. 최근엔 어선들도 경비정과 비슷한 속도(시속 31Knot~57km)를 낼 수 있어, 멀리서 발견한 뒤 쫓아가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이야기다.

목포해경의 경우 6척의 경비정을 2박3일씩 교대근무시키며 하루 평균 3~4회 단속을 벌이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4건만을 적발했을 뿐이다. 여수해경은 최근 화정면 앞바다에서 꽃게 500kg 상당을 몰래 잡은 어민 2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1t 미만의 소형 선박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해경 임재철 정장은 "금어기 때 조업하는 것이 생활터전을 황폐화시키는 일이라고 어민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승배·이상희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 태풍 3개 동시 발생 북상중

# 10일께 한반도 영향 가능성

태풍 3개가 연달아 발생, 북태평양 해상을 이동하고 있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천200km 부근 해상에서 제7호 태풍 '마리아'(MARIA·미국 여자이름)와 제8호 태풍 '사오마이'(SAOMAI·베트남 말로 '금성')가 지난 5일 발생했다. 이어 6일 밤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서 제9호 태풍 '보파'(BOPHA·캄보디아 말로 '꽃')가 발생, 대만 타이베이 쪽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3개 태풍은 중심기압 970~98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5~31m(시속 90~112km)의 중·소형이다. 기상청은 10일쯤 동해안 일부 지역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사오마이'가 10일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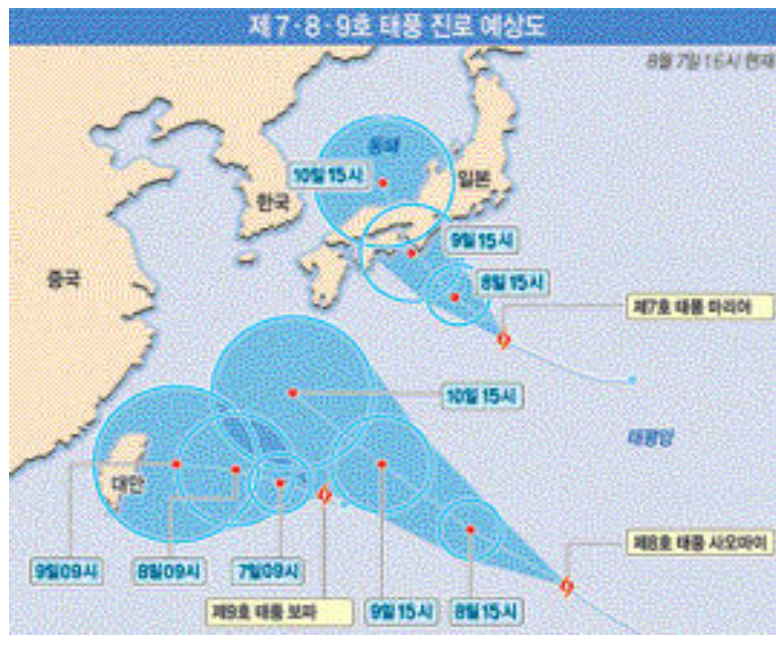
상 상태에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 잇단 태풍 이유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이어진 몬순 기압골(monsoon trough)과 열대 수렴대(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1971년부터 총 26회. 4개 태풍은 지난 72년, 82년, 94년에 각각 1번씩 3회 나타났다. 1960년 8월에는 5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 광주시내버스 20일부터 무료환승 거부

### 노조, 9월1일 파업 돌입

'광주 버스노동조합'(위원장 우원호)이 오는 20일부터 무료 환승제 승차 거부를 선언했다.

노조는 7일 광주시 북구 유동 한국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부터 무료 환승제 승차 전면 거부 ▲21일 파업 찬반투표 ▲9월1일 새벽 4시 운행 중단 등 단계적 투쟁방향을 밝혔다.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일수 축소 ▲기본급 10.1% 인상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경영난(체불임금 58억여원)과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일정부분의 경영에 관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무료 환승제 = 교통카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기입국을 위해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C씨 하루 이용객은 전체 탑승객 43만여명 중 4만7천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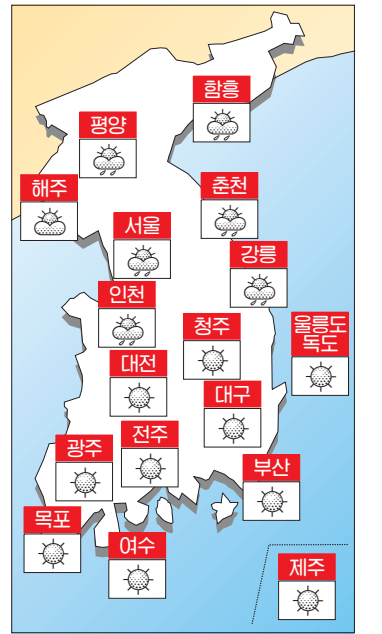
## 짜증내면 더 더워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 서 맑겠다.

## 8월 8일

(음 7월 15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23~33℃
목포	구름조금	25~33℃
여수	구름조금	25~31℃
전주	구름조금	23~33℃
대구	구름조금	23~36℃
부산	구름조금	22~34℃
서울	구름조금	22~34℃
인천	구름조금	23~34℃
대전	구름조금	23~35℃
울산	구름조금	24~34℃
경주	구름조금	24~34℃
대구	구름조금	24~34℃
부산	구름조금	21~35℃
제주	구름조금	23~3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1:18 썰물 < 06:51  
여수 밀물 < 08:03 썰물 < 14:06

▲해돋이 05:46 ▲해질 19:29 ▲달돋이 18:58 ▲달짐 0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최저/최고	24/32	23/31	23/31	24/32	24/32	24/32

## 생활안내

교통안내	기장법률상담소	신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건복지위원회상권상담소 671-4050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철도안내 1544-7788	광주 YMCA 527-0011	●전남경찰청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관주지검 233-2828
아시아항공 221-6300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사이버테러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법무청 1588-9090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소복지 상담 광주 YMCA 232-6133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당직호서(8월) 주운식 222-6401	●광주 여성전화 363-7739
	●법무사회 법률상담(8월) 김근표 239-180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노동현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현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 '냉동고 영아' 산모는 프랑스인 아내

### 경찰, 현지 당국과 공조...佛 부부 28일 입국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울 서래마을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갓난아기)들은 프랑스인 C(40·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 엔지니어)씨 부부의 아기 형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은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영아들의 산모는 C씨 아내인 프랑스인 V(39)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부부의 소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기입국을 위해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C씨 하루 이용객은 전체 탑승객 43만여명 중 4만7천여명이다.

며 이달 28일 예정대로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아들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란성 쌍둥이인지 순차적으로 태어난 형제들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국외수는 V씨가 사용하던 칫솔 등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V씨가 산모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형사사법 공조=한국 경찰이 법무부 통해 프랑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뒤 프랑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